

향기로 은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 김경삼(김해숙) 김구찬(최효자) 김미희 김종선(박영숙) 김준구(이소은) 김진희 김현구(서재희)
맹지혜(임기빈) 박금영 박부웅(최귀남) 박순웅(이승애) 방성태(차옥자) 배정철(김순화) 백성만(안지영)
이상화(김정연) 유호근(손명화) 원병호(양영숙) 윤 소 윤영준(박진숙) 이상희 이옥남 이윤록 이태일(송백현)
신정철(박희영) 이창교 장성자 장운주(박진경) 정기진(서순옥) 지상건(이복현) 채영만(서시철) 천세혁(염영분)
천영란 최기봉(정계자) 최정규(김유정) 최정희(박원조) 하세현 황영록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최지은) 강은미(김선주) 김영림(손정아) 김규찬(최효자) 김준구(이소은) 김해숙(김경선) 명지혜(임기빈)
박승엽 박순웅(이승애) 박희영(이한철) 방현숙(성영신) 안지영(백성원) 이미자 이복현(지상건) 이윤옥
이태린(송복현) 이한철(박희영) 정기성(심순숙) 채영민(서시철) 최기훈(정계숙) 최정희(박원조) 하세린
홍유정 홍한표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 이필래 김경열(손정아) 김병율(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춘화 맹지혜(임기빈) 박부웅(최구남)
박순자(이동수) 임영민(천세력) 윤정자(최소현) 이미지 이옥남 이월숙 이정순 이종문 이한철(박희영) 전수홍
정기성(심승욱) 차옥자(방조태) 채영명(서시철) 하세련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준홍 박희영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소은 이승예 이아련 이옥남 정승현
정해지 주성택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36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창세기 19장 12절 ~ 22절		
월요일	창세기 19장 23절 ~ 29절	목요일	창세기 21장 1절 ~ 7절
화요일	창세기 19장 30절 ~ 38절	금요일	창세기 21장 8절 ~ 21절
수요일	창세기 20장 1절 ~ 18절	토요일	창세기 21장 22절 ~ 34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켈 시 온 ·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박 송 기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김정아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잡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선 교 사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흥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움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할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8. 28.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

옴기 6장 14~30절

설교: 이진우 목사

친구들에게 위로와 이해를 기대했던 옴은 철저히 실망했습니다. 옴은 자신을 실망시킨 친구들에게 느끼는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옴의 말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 자가 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정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듯 낙심한 마음에는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고난당 할 때 때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만일 자신이 낙심해 하나님을 원망할 지라도 그러한 자신을 동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옳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난 당하는 자신을 동정해 주지는 못 할지언정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친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해서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마치 물이 끓을 때는 말라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병처럼 피해를 주는 개울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옳이 풍요롭게 살던 때에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옳이 친구들의 따뜻한 동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친절 대신 상처만 안기고 있습니다. 옳은 이러한 친구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친구들은 옳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옳에게는 그러한 가르침보다 동정심이 훨씬 더 필요했습니다. 이런 동정심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데도 우리처럼 시련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낙심히 이해하고 동정하심은 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동정을 우리는 “공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생의 문제를 겪고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으며,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쓰럽고, 애처롭게 여겨집니다. 우리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의 긍휼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고난 당하는 자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옴의 친구들은 옴을 책망했습니다. 옴은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옴은 친구들의 가르침에 그 마음은 더욱 치치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다. 지금 친구들은 고난 당해서는 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에 더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 그들은 옴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옴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옴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옴의 모든 상황과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옴을 판단의 잣대로 저울질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옴은 하나님께 정계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라 결론을 내리고, 옴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귀는 막혀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굳어짐으로 옴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까지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쏟아 내고 불평한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이며 친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결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 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심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안의 슬픔과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않으며,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태와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단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여 때로 더욱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 고난과 낙심됨과 괴로움의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하기에 앞서 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고 기쁨과 사랑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SINCE 1975

No. 48 - 36

2022. 09. 0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p>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p>			
<p>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p>		<p>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p>	
<p>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p>		<p> 이 Yee, </p>	<p> 진 우 Jin Woo </p>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최 기 훈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38(통364)장 다 갈 이
(Prais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대 표 기 도 [1부]장운주집사
(Prayer) [2부]윤영준장로
[3부]최기훈장로

성 경 봉 독 읍기 7장 1~10절(구약p.767)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 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예수 거룩한 이름[Mary McDonald]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하나님께 호소함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65(통484)장 다 갈 이
(Praise)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주일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강 영 성 장 로
목	도
성	시 시편 90편 12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507(통273)장 다 갈 이 저 북방 열을 산과
기	도 김 경 엽 집 사
성 경 봉 독	역대하 32장 1~8절(구약p.700) 사 회 자
찬	양 시 온 찬 양 대
설	교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정 세 미 선 교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505(통268)장 다 갈 이 온 세상 위하여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찬	양 다 갈 이
기	도 [다음주:유옥자권사] 이 미 향 권 사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6장 30~44절(신약p.62) 인 도 자
설	교 오천 명을 먹이심 김 제 호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 광고
 - [사랑의 주일]
오늘(9/4)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2022년도 하반기 사랑의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선교보고]
오늘(9/4) 찬양 예배 설교는 태국 선교사님이신 정세미 선교사님 선교보고로 합니다.
 - [피택자 교육]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은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오후 1시 40분 / 장소: 로템나무
 - [온 가족 예배]
다음 주일(11일) 3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진행합니다. 1, 2부 예배와 찬양 예배 및 주일학교 예배는 없고, 3부 예배만 진행합니다.
 - [추석 연휴 기간 예배 안내]
추석 연휴 기간 새벽기도회만 진행되며, 9일(금) 금요기도회는 한주 가정 기도로 대체 합니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가족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전도회 연합회]
9월 헌신예배가 9월 15일(목) 오전 11시 신반포교회(홍문수 목사 시무)에서 있습니다.
※ 교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 [본당 입구 공사]
본당 입구 계단 및 루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당 입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월 행사 안내]
9월 4일(주일) 사랑의 주일
11일(주일) 온가족 예배
19일(월) 서울남노회 고시부 예비 학습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피택자 교육	* 여전도회 월례회

환영합니다

- ▶ 남해순 성도(사랑1 교척 11/루디아여전도회) 스스로.

교우소식

- ▶ 소천: 故 장복순 집사 8월 30일(화) 소천, 9월 1일(목) 장례.

담임목사동정

- ▶ 영성목회연구회 수련회 참석 9월 5일 월요일 11시부터 십자수기도원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박권제 장로	박권제 장로	박권제 장로 송명숙 권사	안지영 권 사	사랑2 개봉2	한나 여전도회
다음주	최정규 집사 김미영 집사			송명숙 권 사	개봉3	드보라 여전도회

9월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4일)	최기훈 장로	장윤준 집사	윤영준 장로	최기훈 장로	강영성 장로	김경엽 집사	이미향 권사	
2주(11일)				임만순 장로			유옥자 권사	
3주(18일)	담 임 목 사	홍정훈 집사	강영성 장로	박권제 장로	김병을 장로	박종삼 집사	이강우 권사	
4주(26일)	최성현 장로	김종진 집사	김병을 장로	최성현 장로	최기훈 장로	최상걸 집사	박순자 권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